

나주시,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강화

내년부터 전문 인력 숲가꾸기 패트를 본격 운영

위험수목 정비·제외 대상 범위 주민 홍보 주력

전라남도 나주시는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가 연결 위험수목 피해 예방을 위한 2020년 연중 '생활권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숲가꾸기 패트 운영'을 통해 생활권 재해 위험수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시는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 및 정비대상 범위 설정과 주민 홍보에 주력해 행정적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고소작업차, 리프트트릭 등 전문 작업 장비를 확보하는 등 급년 대비 사업량이 165%증가한 주택가 위험수목 500주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수목이란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 낙뢰·바람·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

히 제거해야할 나무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주택에 인접해 있어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한 수목이며 관련 법령 상 저축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 중 인접건물 및 지장물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나무 벌채, 농경지 및 분묘 주변 수목, 아파트 기압, 경찰서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사유지 내 낙엽·낙과·그늘 등 단순 불편 대상 수목 △소송 진행 또는 인위적 훼손 흔적이 있는 수목 등 관련법령 상 제한이 있는 수목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위험수목에 대한 '재해위험수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수목위치(소유, 경계 및 민원요구사항), 대형장비 진입 가능



위험수목 제거 현장

여부, 현장조사 확인과 작업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작업을 추진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 숲가꾸기 패트를 운영을 통한 전담인력 배치, 고소작업차 등 전문 작업차 확보로 재난 상황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안전에 안전을 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주택가 위험수목 총 279목을 제거했다.

고흥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여성지도자들의 리더십 강화 및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고흥군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여성군의원, 여성단체회원, 여성이장, 여성공무원 등 여성지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고흥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지도자들에게 교육을 통한 리더십 역량 강화는 물론 여성지도자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지역발전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내 마음의 행복 충전" "강좌와 "한마음 프로그램" 인도어 컬링" 및 "조직 화합력 강화를 위한 팀워크 프로그램", "지역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었으며, 2020년에도 군 발전을 위해 여성 지도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 취·창업지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여성단체활동지원, 이동여성취미교실운영,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등 5억3,000만원을 지원해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한운심 기자



담양군, 자원봉사센터 2년 연속 '우수'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사례 추진실적서 좋은 평가

담양군 자원봉사센터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담양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기반 구축과 지역에 자원봉사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했으며, 특히 올해 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실인원 2,190명, 연간활동인원 11,066명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 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백동LH 행복아파트만 들기 입주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행복티움단'을 구성·운영해 커뮤니티센터 조성, 일일

카페 운영, 화단 가꾸기, 미용봉사, 장수사진 및 프로필 사진 촬영, 독거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독거중장년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 운영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우수자원봉사자 우대 제도를 도입, 할인대상 공공시설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할인가맹점을 모집한 실적도 가점으로 적용됐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봉사단체간 연대를 통한 연합봉사 추진 등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광군, 청년 희망 디딤돌 참여자 모집

2020년 1월 10일까지...15일간 모집

영광군은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참가자를 지난 26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2020년 1월 10일까지(15일간) 마감한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 디딤돌'은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10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10만원)의 지원금을 3년간 영광군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26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으로 등록된 내국인, 상용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9. 6. 29. ~ 2019. 12. 25.) 이내 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또한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061-350-5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당당하게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하길 바라며 앞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061-350-5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여수시,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박차

여수시는 옛 철길 공원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라선 폐선부지 일부를 매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미평 터널~(구)덕양역 8.2km, 17만 8549㎡를 206억여 원에 사들였다.

그동안 여수시는 이 구간을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억 원 이상의 임차료를 지불해 왔는데, 이번 매입으로 예산 절감 효과까지 얻게 됐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은 구역을 나눠 2단계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만흥-양지바름 공원 16.1km 구간으로 지난

2019년 9월 개통했다. 2단계 사업은 (구)덕양역~대포~(구)윤촌역 5.3km 구간이며,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6월 말까지 1단계 사업구간 중 10만 8000㎡를 매입했고, 잔여 부지도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2단 사업구간은 공원계획을 수립한 후 부지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라선 옛 철길 공원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